

작곡가 류형선 씨는 단절된 전래자장가를 되살리기 위한 작업으로 자장가집 《전래자장가 자미 집이》(보림)를 만들어 냈다. 클래식과 피플러 음악, 국악이 어우러진 자장가를 창작하면서 류씨가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은 '누구나 편하게 따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구전되던 자장가의 맥이 끊겨 창작동요는 있어도 자장가는 없는 현실을 우려한 탓이다. 출판사 '세상모든책'이 최근 펴낸 《자장가》 또한 이 같은 맥락으로 기획된 책이다. 신경림, 유안진, 김용택, 도중환 등 내로라하는 시인 네 명이 의기투합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신경림·유안진·김용택·도중환 선생님이 들려주는 《자장가》

모든 엄마의 마음으로 네 명의 시인 의기투합해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의 사랑과 자연을 동시에 느끼도록 하는 게 자장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장가에 너무 소홀했어요. 자장가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섬 집 아기>나 <오빠생각> 정도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알려진 것들도 가사나 멜로디가 구슬프고요. ‘자장가다운 자장가’, 새로운 자장가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문득,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어떤 자장가를 들려줘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획과 편집을 도맡은 황은주 편집자는 “한마디로 《자장가》는 모든 엄마의 마음을 대표해 작업한 책”이라고 말한다. 한편, 잠을 청하는 아이에게 ‘자연’을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에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넓은 마음을 품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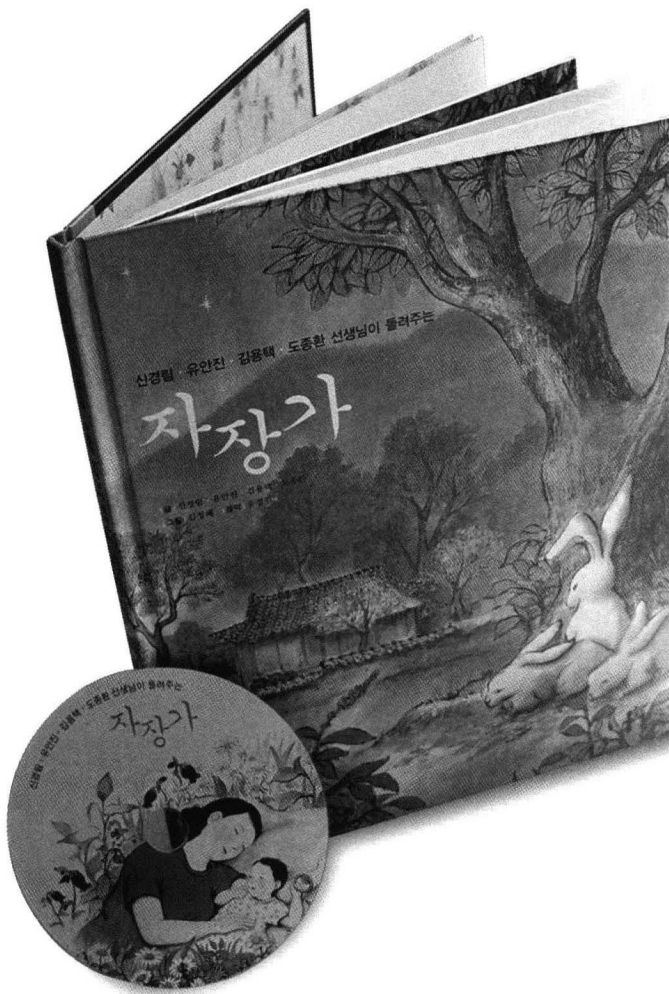
처음, 신경림 시인에게 이런 뜻을 전하고 작업을 권고하기를 수개월, 그러다가 당초 의도는 아니었지만 추천에 추천이 이어져 유안진, 김용택, 도중환 시인까지 뜻을 함께 하게 됐다. 저마다의 색깔로 시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중년급 시인들이 마음을 모으니 편집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일이 없었다.

삼화가 어우러진 4인 4색의 자장가시

작년 8월, ‘구체적으로 뜻을 모아 보자’며 네 명의 시인과 황 편집자가 첫 만남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생명의 숨결을 들려주자’는 취지에 맞게 사계절을 책의 콘셉트로 잡는 데 모두가 동의했고 그 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선생님들과 모인 자리는 무척 평안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 자연스럽게 그간 품고 있던 생각을 나누는 편안한 자리가 됐지요. 사계절을 《자장가》의 기본 흐름으로 잡고 나서도 ‘내가 봄 할래니 네가 여름 해라’가 아니라, ‘나는 봄 할까?’ ‘그럼 난 가을 할래요’ ‘난 겨울’ ‘그럼 제가 여름 하겠습니다’ 하시면 그야말로 ‘사이좋게’ 역할분담이 정해졌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는 작업이었기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용택 시인은 봄, 도중환 시인은 여름, 유안



《자장가》 신경림·유안진·김용택·도중환 글 | 김정혜 그림 | 송경진 음악 | 세상모든책 | 72쪽 | 값 10,000원

진 시인은 가을, 신경림 시인은 겨울을 맡았다. 시인들은 각자 정해진 계절에 따라 10여 편의 '아름다운 자장가 시'를 만들어 냈고 시들은 시인마다의 뚜렷한 개성만큼이나 다른 표현, 다른 울림을 자아냈다. 황 편집자는 "시를 쓰기 전에 소재를 나누거나 주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들이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스러웠지만 그것은 괜한 기우였다"고 말했다.

'자장가 시'라고 단 시간에, 짧게만 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반복되는 운율로 아이들의 정서를 도다렸던 전래자장가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시인 모두는 한편 한편에 내공과 필력을 담으려 노력했다. 유안진 시인은 성당에 나가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와중에 시를 썼고, 김용택 시인은 두릅, 냉이, 달래와 같이 자연적인 순수 우리말을 소재로 삼아 듣는 그 자체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를 썼다.

한편, 책에 실린 그림은 동양화를 전공한 김정혜 씨가 그렸다. 때로는 판타지기법으로, 때로는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린 수채화는 각 시와의 어울림이 절묘하다. 장대같은 비를 쏟아내는, 아이가 혼자 자는 집을 비취주는, 김정혜 씨의 독특한 그림들은 시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특히, '여름' 편에서는 책의 양쪽 페이지를 이용해 전체적인 풍경을 시원스레 담아내는가 하면, '겨울' 편에서는 백색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계절마다 특색을 살린 구성으로 삽화라는 보조역할이 아닌 그 자체로도 하나의 시가 되게 했다. 그림을 보면 이 책으로 잠을 청할 아이처럼 계절이 갈수록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는 일도 재미있다.

"이 책을 기획하기 전에 엄마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자기 전에 자장가 들려주세요?' 하고 물으면 엄마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간혹 레이프를 이용해 동요를 들려준다는 엄마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배울 것도 많은데 자는 아이한테까지 굳이 자장가를 들려줘야 할 필요가 있냐'는 대답이었지요. 《자장가》와 같은 책이 나오면 어떨 것 같으냐는 물음에도 통명스러웠어요. 당시는 걱정스러웠는데 막상 책이 나오고 나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초반이라 앞으로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주위 엄마들 반응은 아직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더라'고 칭찬을 해주더군요."

‘자연’ 느끼게 하는 CD제공. “아이들의 편안한 잠을 위하여”

《자장가》의 또 다른 장점은 음악과 자장가 시 낭송이 어우러진 CD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CD 녹음 작업에 참여한 방송음악 작곡가 송경진 씨는 자장가 시 28편마다 특색 있는 멜로디를 붙여줬으며, 시어를 따라 가공되지 않은 소 울음소리, 모기 소리, 빗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삽입했다. 원음을 그대로 담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시 낭송 부분에 있어서도 엄마 목소리와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전문성우를 섭외하지 않았다. 황 편집자는 "녹음 하셨던 선생님은 쌍둥이 출산을 앞둔 만삭의 몸이었는데도 호흡을 고르며 자장가 시를 낭송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후 낭송자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작업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가역을 책정할 때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동도서가 만원은 훌쩍 넘는 게 보통인데다가 엄마들에게 많이 읽히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높이 책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은 서점엘 나갔는데 책을 사달라는 아이에게 한 엄마가 "책은 여기서 보는 거야. 책이 비싸서 다 못 사" 하고 말하더라고요. 살림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책 종류도 넘쳐나는데 아이들은 보고 싶은 책이 얼마나 많았어요. 물론 손익분기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번쯤 꼭 봐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장가》는 우리 아이들의 편안한 '잠'과 그 아이들이 오롯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네 명의 시인들이 모여 작업한 뜻있는 결과물이다. 언제고 누군가가 해야 했을 작업, 황 편집자는 "새로운 기획을 '발굴'한 것이기보다는 이전부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의식이 《자장가》라는 책으로 조금 뒤늦게 발현됐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쓴 자장가가 / 어머니의 입에서 아이의 입으로, 친구들과의 흥얼거림으로 / 불리고 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자장가 시를 읽기 전에' 중에서 **출판**

취재_홍이현기자 | 사진_박신우기자



황은주 편집장